

Run4Unity 2008



2008 년 5 월 10 일, 토요일

로마 나보나 광장

위성 중계 시작 (18:00-19:20)

노래 “RNU4UNITY”

The city streets are grey
With people suffering in their pain
The joy they hunger for
Is near and not so far away.

Give love and you will find love
Share the pain that's all around you
Take away all the sorrow,
Heal the wounds you see
Happiness will follow.

**Time to run all together
all the world is set in motion
join our race as we reach our goal
Run, run, run – run and go. (2x)**

The race continues on
And soon we'll be one family
Come join our effort and the river
Soon will meet the sea
Just do your part, He'll be there
And multiply your actions
See your city grow
Make it your intention
Nations all united.

Time to run all together... (2x)

All you people hear me out!
Come and stand beside our cause!
Know the day is near at hand
When all the nations will rejoice
Feed all the hungry! Tend to the thirsty!
Clothe all the naked! Give to the needy!
So roll up your sleeves and you'll make a big difference!
The world will live as one!

Time to run all together... (3x)

인사- 우리는 누구인가?

프란치스코 : 안녕하세요!

레티치아 :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우리가 일치되어 있는 것을 보는 세계 릴레이 경주, 제 2 회 Run4Unity 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루카 : 5 대륙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며, 우리와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인사해요.

프란치스코 : Welcome to Run4Unity!

크리스티나 : 살루트!

루카 : 홀라!

레티치아 :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레티치아,

크리스티나 : 크리스티나,

루카 : 루카,

프란치스코 : 프란치스코가 인사해요!

크리스티나 : 오늘 백여 개의 도시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한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로 baton을 넘기며 우리의 목표인 일치된 세상이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가 아님을 말하기 위해 달려요.!

루카 : 각자가 자신의 구간을 달리는 것으로 충분해요.

레티치아 : 도보로, 롤러 스케이트로, 자전거로, 카누로, 공중케이블카로도 괜찮아요.

크리스티나 : 공중 케이블카라고 했나요?

레티치아 : 맞아요! 세상 가장 높은 곳의 Run4Unity 는 고도 4000m 이상의 에콰도르 키토 시에서 열리기 때문이에요.

루카 : 여기 로마 나보나 광장에서도 광장 주위로 긴 원을 그리며 우리의 경주가 막 끝났어요.

프란치스코 : 우리는 43 개 국에서 온 2000 명의 청소년들로, 특별히 끼아라 루빅에게 우리의 감사를 드리며 바치는 이 행사의 주인공들이에요. 2 달 전에 우리는 끼아라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레티치아 : 우리는 함께 이 행사를 준비했고 끼아라 스스로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랬었어요. 끼아라는 항상 거대한 꿈을 꾸었는데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예수님의 유언인 “모든 이의 일치”를 실현하는데 협력하는 것이었어요.

루카 : 서로 다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다양한 종교에 속한 일치를 위한 청소년들인 우리도 오늘 끼아라의 바톤을 받아 들고 세상을 일치된 백성들로 이루어진 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달려갈 것이에요.

크리스티나 :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도시에서 시작해야 해요. 고독과 무관심의 회색 지대가 줄어들기를 바라요. 자주 우리는 대화 없이 그저 스쳐지나 가지요. 우리는 바꾸기 위해 무언가 하고 싶으며, 우리의 도시에 색깔을 주고 싶어요.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독일 바비에르 지역, 회색 도시에 관한 3 장 무대 공연

회색의 청소년들은 다음의 내용을 표현한다.

1. 의사소통 불가

기술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고립을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장면: 각자 자신의 컴퓨터를 갖고서 고립되어 있다. 붓은 안테나의 모습을 하고 있다. “색깔 옷”을 입은 한 아이가 들어 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아이가 들어 와 그들 주위의 회색 옷을 색칠하기 시작한다. 컴퓨터의 “안테나들”이 그들을 서로 연결하기 시작한다.

2. 차별, 모빙, 소외

더 강한 현실이 어떻게 더 힘없는 현실을 억압하는지 보여준다.

장면: 회색 옷의 아이들이 (대중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상징인) 무기처럼 붓을 거꾸로 들고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한 아이를 구석으로 밀어붙인다. 그림 도구를 들고 색깔 옷을 입은 아이가 들어와 붓을 적시며 소외된 아이 편에 서서 그 아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이 색깔 옷의 아이 또한 위협을 받고 소외 당한다. 그러나 계속 색칠을 하고 차츰차츰 회색 옷의 아이들은 무기를 땅에 떨어뜨린다.

3. 분열, 갈등

일상의 삶의 작은 현실에서 더 거대한 차원의 백성들 사이의 충돌에 이르기까지 두 현실의 충돌을 보여준다.

장면: 서로 대립하는 두 대열을 구성한다. 회색 붓을 사용해 벽과 망을 높이 쌓는다. 3명의 색깔 옷의 아이들이 들어와 벽이 무너질 때까지 한 조각씩 색을 칠한다.

황금률을 제안하며 모두에게 실천하도록 초대

루카 : 무관심과 고독과 소외의 벽을 부수고 우리의 도시를 색칠하는 것. 독일 바비에라의 가톨릭, 복음교회의 일치를 위한 청소년들이 무대공연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우리 또한 바라는 것이지만 이 만연한 회색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레티치아 :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복음의 한 구절이 있어요.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는 모든 종교가 공통으로 지니며, 또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적합한 보편적인 법으로, 황금률이라고 불려질 만큼 참으로 소중한 것이에요.

루카 :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모두 함께 이 작은 법률을 실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에요. 하루 중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호감이 가는 사람,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 젊은이, 노인,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조국인, 외국인,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해요!

레티치아: 그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에게 해 주는 것이에요. 때로는 미소나 환영의 말, 이해하고 귀를 기울여 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에요.

루카 :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이 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회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 볼까요?

레티차/아 : 이 자리에 카탈리나가 참석했어요. 카탈리나에게 황금률은 매우 힘든 상황의 해결책이 되었지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카탈리나- 가정 안에서 실천한 황금률

네.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왔고 13 살이에요. 6 살 이후부터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장님인 엄마와 21 살인 오빠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매우 일치되어 있으며 둘 다 음악을 사랑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해요. 1 년 전에 예기치 않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오빠는 마약을 시작했고 내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슬펐고 화가 났기에 그에게 말도 걸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를 늘 행복하게 해주었던 연주를 함께 하자는 제의도 거절했어요. 매일 오빠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엄마 역시 불안한 상태였고 걱정에 사로잡혔어요. 어느 순간 오빠는 나의 분노가 아니라 내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참으로 내 태도를 바꾸어야 했어요.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는 복음의 말씀을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빠를 무시하는 대신에 주의 깊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축구를 하러 가면 함께 가겠다고 제의했어요. 비록 스포츠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다시 마약에 떨어지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빠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어요. 차츰 우리의 관계는 원상태로 돌아왔고 오빠 역시 내가 그에게 하듯 나를 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로마에 가고 싶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하철에서 함께 연주하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연주를 좋아했고 기부를 했어요. 오빠는 그 돈을 여행 경비로 사용하기를 바랬어요. 지금 오빠는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황금률을 살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오빠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그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경험담을 나누도록 초대

레티차/아 : 카탈리아에게 감사해요! 우리 역시 이 복음 말씀의 결실을 체험해 보고 싶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 말씀을 살면서 체험해 보기로 해요.

루카 : 수많은 경험을 할 것으로, 우리는 사이트 포럼 코너에 경험을 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레티치아 : 루카, 저 아래에 어떤 움직임이 보이지 않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루카 : 정말 몰라요? Run4unity 는 “사랑으로 우리 도시를 색칠하자”라고 부르는 더 거대한 프로젝트에 속해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두 마디 말로 우리 도시에 회색으로 구석진 모든 곳을 색칠하자는 우리의 다짐을 표현해요.

“+” 표시 공연

“+” 표시를 선포하며 경험담 소개

프란치스코 : “사랑으로 우리 도시를 색칠하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계산을 해야 해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상용되는 수학 공식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에요. “사랑을 더하자”는 “+” 표시로 시작하겠는데, 크리스티나가 이제 설명해 주겠어요.



크리스티나 :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힘을 모아

끊임없이 항상 서로 사랑하자고 약속한 다음

우리 주위를 바라보자.

도시의 크기를 측량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도시를 색칠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선택하자.

프란치스코 : 알렉시오, 일치를 위한 청소년운동을 알고 난 후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얘기해주세요.

이탈리아 아시시의 알렉시오: 일치를 위한 청소년 운동의 이상은 나의 이상

얼마 전에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한 단체의 교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내게 물었어요. 그 단체의 도움을 받는 정신 지체 장애아들을 수영장에 데려가는 일이었어요. 나는 즉시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어요. 내 친구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보면 나를 놀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며칠 후에 일치를 위한 청소년들을 알게 되었는데 매우 아름다운 경험을 했어요. 그들의 사는 방식과 모두를 사랑하는 방식은 내게 매력을 주었어요. 그들이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보며 나는 정복되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께서는 내게도 그렇게 살 것을 제의하셨고 나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차츰차츰 예수님께서 내 삶을 바꾸셨는데 이제는 가능할 때마다 그 단체를 찾아가 그곳의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고 같이 놓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해요.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느껴요. 나는 내 삶의 참된 의미이신 하느님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어 매우 기뻐요.

파라과이의 알렉산드라: 시대사조를 거슬러가며

프란치스코 : 알렉시오, 감사해요. 우리 중에도 결코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친구들을 오늘 만날 수 있을 것이예요. 이 자리에 알렉산드라가 와 있는데, 파라과이에서 왔고, 최근에 매우 강한 경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혼자라면 결코 직면하지 못했을 것이예요. 그렇지요?

맞아요. 생일 파티에 갔는데 내 친구들이 술에 완전히 취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절친한 몇몇 친구들과 나는 정말 걱정스러웠어요. 그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보드카와 맥주 병을 모두 비우고 싶었지만 그들은 내게 “착한 척”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아무에게 말하지 말도록 나를 위협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며 그들이 행하는 잘못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중에 나는 친구들을 배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참으로 중대했기에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월요일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과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 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실상 그 사실을 알린 사람은 내 친구의 부모님이었어요. 매일의 헐박과 욕설과 조롱을 이겨내기란 참으로 어려웠어요. 어느 누구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가족과 일치를 위한 청소년 운동이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들에게 감사하는데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계속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었고 내 친구들은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술을 마셨어요.

많은 때 파티에 나를 초대하지 않거나, 초대했다 하더라도 독한 술을 권하고 거부하면 나를 놀리곤 했었어요. 일치를 위한 청소년들의 도움으로 삶을 해치는 그런 방식에 빠지지 않고 거슬러 갈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가족들은 비밀리에 나를 위한 생일파티를 준비했는데 모든 친구들이 참석했었어요. 술이 없는 색다른 파티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체험했어요.

아프리카 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사

아론 : 아프리카의 인사를 전해요! 우리는 우간다, 탄자니아, 카메룬, 나이지리아, 부르키나 파소, 에디오피아와 케냐에서 왔어요. 케냐에서는 수많은 희생자와 폭력을 야기하고 피난민과 더불어 도시의 삶을 휩쓴 시민 전쟁으로 인해 출발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선거 후에 우리는 여기저기 집을 떠나 도망을 가야만 했어요. 상황은 너무도 모순적이었고 종족들 간의 증오가 너무도 강했기에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악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약은 사랑임을 알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신티아 : 황금률을 실천하기 위해,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중 한 그룹은 피난민이 도달해 모든 것이 부족한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 일차적으로 필요한 음식, 의복, 비누 등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다른 이들을 위해 계속 살고자 해요. 끼아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 표시 공연

“” 표시 선포



레티치아: 우리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자.

우리 각자는

결코 중단하는 일 없이,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자.

루카 : 경주의 또 다른 단계 “:” 표시로 넘어가겠는데, 즉 함께 나누는 것이예요.

밀라노의 루카: 짚시 청소년들과 함께

밀라노의 “일치를 위한 청소년”들인 우리 역시 시도해 보았던 일이었어요.

도시의 더 어두운 장소가 어디이며, 더 소외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고자 했을 때는 친구들이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해 도시에 합류하는 어려움을 지닌 몇몇 짚시 가정에 대해서 말했을 때였어요. 경멸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흔히 짚시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단지 물건을 훔칠 줄 아는 사람들로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바라보면서 이런 선입견을 없애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주거지는 자동차 공장 창고 뒤에 숨어있었어요. 가까운 부자 동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불편을 야기하는 현실이었어요. 진흙탕의 거리와 양철로 된 움막들, 널린 시궁창들...우리 도시에 이런 현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처음의 충격 후에 우리는 사랑으로 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열정으로 넘쳐 우리는 15 명의 짚시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했고 성탄이나 여러 축제 때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너무도 활발했는데 조심스럽게 여러 작업들을 준비했지만 10분 후면 모든 것이 파괴되곤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주었던 사랑은 남았으며, 기쁨으로 넘치는 그들의 감사 인사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답이었어요.

그들과 더불어 우리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역시 우리 도시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과 그들과 함께 시간과 우정을 나누는 것은 모두를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브라질 레시피의 마리아나와 안나 클라우디아: 학교에서의 주는 클럽

우리는 마리아나와 안나 클라우디아이며 브라질 레시피에서 왔어요. 매우 가난한 구역으로 둘러싸인 레시피 근교의 한 학교에서 “주는 클럽”이 태어났어요.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드는 물건에 애착을 끊고 “주어라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음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고서 내어주는 것이예요.

우리 보다 더 가난한 가정을 방문하면서 플라스틱 움막에서 살고 있는 과부인 부인과 4 명의 자녀들을 위한 집을 이 클럽이 건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애착을 끊어버린 물건들을 보면서 그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여러 국가의 "일치를 위한 청소년 운동"에서 도달한 기여로 우리는 그들의 집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집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클럽에 대해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자주 할인을 해 주는 건축 자재 가게의 주인처럼 참여하고자 했고 그렇게 집들이 늘어났어요. 한번은 한 법인 단체가 부지를 구입하고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금액 전체를 우리에게 기부했어요. 지금까지 5 채가 건설되었고, 4 채가 보수 공사를 했어요. 우리는 10 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학교 클럽 회원은 90 명이예요.

경험담을 끝마치며 인터넷 포인트 연결

레티차/아 : 마리아나와 안나 클라우디아에게 감사해요. 이제 인터넷 포인트를 연결하겠는데 로레나, 어떤 소식들이 도달하는지요?

세계에서 보낸 릴레이 경주 소식

로레나 : 오늘 세계의 300 도시가 우리와 연결되었으며 현재 수많은 사진과 메시지들이 도달하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열정이 넘쳐나요. 아리아나, 바올로, 일라리아에게 소식을 청하기로 해요.

아리아나 : 예를 들어, Tv 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레바논에서는 크리스천과 무슬림 청소년들이 릴레이 경주가 개최되고 있는 아인아르 광장에 평화의 상징으로 올리브 나무를 심었어요. 시장은 모두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없애도록 노력할 것을 청하며 릴레이 경주를 기원했어요. 전쟁의 위협은 항상 잠재되어 있으며 두려움과 용기를 잃어버리게 해요. 내일 일치를 위한 청소년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최근 무장 충돌이 일어났던 국경 지대를 찾아갈 것이예요.

바올로 : 헝가리에서는 맹아 청소년들이 긴 다뉴브 강을 달렸어요.

이탈리아에서도 24 개 도시에서 개최되었어요. 쿠네오에서는 스키 전 챔피언인 스테파니아 벨몬도가 참여했어요. 피사의 아르노 강에서는 카누 협회가 참여했고 시칠리아에서는 응원단들의 충돌로 유명해진 치발디 스타디움에서 열렸어요. 이몰라에서는 페라리의 엔진 소리로 출발했어요.

일라리아 : 베네주엘라 카라카스에서는 몇몇 지체 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Run4unit 의 마지막 준비작업으로 열기가 증만해요. 어느 누구도 관람자가 아니라 무대 공연을 통해 모두가 주인공이 될 것이예요. 멕시코 시티에서는 신호등에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설치할 것으로 운전자들에게 여기에 동의하면 미소를 짓고 클락손을 올리도록 청할 것이예요. 반면에 프에블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아즈텍과 스페인 문화의 일치의 상징인 출루라의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예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허가를 받았어요.

로레나 : 우리에게 전해줄 소식은 무궁무진할 것이예요! 아무튼 사이트는 계속 열려있을 것이고, 이제 무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해요.

“-” 표시 공연

“-” 표시를 선포하며 경험담 소개



프란치스코 : 가난한 사람들, 홀로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그들을 향해 달려가도록 해요.

배고픈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요.

혈벗은 사람이 있거든 입을 것을 가져다 주어요.

혼자라면 친구가 되어 주어요.

단지 물질적인 재산만이 아니라

시간과 인사와 주의와 귀를 기울이기 위해 그들에게 가도록 해요.

무엇보다 우리의 미소로서 그들을 감싸주도록 해요.

어느 누구도 홀로 놔두지 않으면서.

크리스티나 : 내 옆에는 콜롬비아의 에릭이 자리했어요. “일치를 위한 청소년”들과 함께 몇 년 동안 매우 흥미로운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고통을 줄이자는 이 “-” 표시를 잘 표현해주어요.

콜롬비아의 에릭: 거리의 행려자들과 함께

4년 전부터 우리는 거리의 행려자들을 돌보는 한 단체와 협력하고 있어요. 그들은 무엇보다 사랑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는 친구를 필요로 해요. 저녁 무렵 우리는 우리나라의 따뜻한 전통 차 “aguapanela”와 샌드위치를 들고 그들을 찾아가요. 우리를 “전통 차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메데진에서 4년째 이 경험을 하고 있고 남부 툴루아에서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강하고 잔인한 많은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들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어요. 한번은 그들 중 한 사람이 “나는 도둑이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했지. 어느 날 우리 중 누군가가 여러분의 물건을 훔치려 한다면 ‘전통 차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 말해.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사실 어느 날 저녁 세바스티안이 한 행려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칼을 들고 위협하며 돈을 청했어요. 그는 “돈은 한 푼도 없지만 내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주는 전통 차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놀라서 바라보며 “차를 나누어주는 사람이구나, 너에게 해를 입힐 수는 없지만, 너희들에게서 우리는 사랑받으며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껴. 나는 배가 너무도 고팠기에 훔치고자 생각했어.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래.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내 탓으로 너희들이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툴루아의 한 친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 6시에 학교에 가고 있는 중 뒤에서 한 목소리가 “핸드폰을 달라고” 청했어요. 뒤를 돌아보았을 때 도둑은 그를 알아보고 “차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어요. 용서를 청하며 다른 도둑에게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까지 동반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지만 후에 이 사람들이 도시에 온전히 통합될 수 있을 것이라 느껴요.

탄자니아의 클라라: 가정에서 더 어려울 때

크리스티나 : 때때로 우리는 극복하기 어려운 개인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탄자니아의 클라라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부터 아버지는 엄마에게 사소한 일에서도 늘 신경질을 부리며 불평하셨어요. 모든 이웃들이 끊임없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나는 이 때문에 매우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며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도 함께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아버지를 사랑하고자 했어요.

아버지는 나와 동생과 함께 있는 것은 좋아했지만 엄마와의 관계는 매번 더 어려워졌어요. 때때로 나는 하느님께 불평하며 왜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묻곤 했었어요.

친구들이 부모님께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비교를 했고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도 슬펐어요.

그 순간 내가 지닌 유일한 비밀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으로, 가능할 때마다 고통도 그렇게 바쳤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인간의 고통을, 그러니 나의 고통도 그분의 것으로 취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는 이로 인해 혼자라고 느끼실 만큼, 이보다 성부로부터 버림받음을 느끼실 만큼, 참으로 나처럼,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는 복음 말씀이 내게 인내심을 지니도록 가르쳐주고 계속 “투쟁하는” 힘을 주었어요.

나는 계속 사랑하고 기도했어요. 하느님께서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비록 부모님이 함께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같은 도시에서 살지 않지만 우리가 깊이 일치되어 있음을 느껴요.

무대공연: 고통과의 만남

“%” 표시 공연

“%” 표시를 선포하고 경험담 소개



루카 : 늘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예요.

노력에는 희생이 따르기에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것이며

이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멈추게 할 것이예요.

누군가 우리를 조롱한다면 용서하기로 해요.

결코 실망하지 않으며

우리의 몫을 하기로 해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은,

우리의 목적을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맡겨드리기로 해요.

우리는 늘 백배로 받게 될 것이예요.

레티차아 : 파키스탄의 두 명의 젠들 역시 우리가 우리의 작은 몫을 한다면 하느님께서 나머지 몫을 하시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파키스탄: 새로운 방식의 은행

대부분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기에 우리 중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절약한 돈을 함께 모아 우리가 고안한 은행에 저축하고자 생각했어요. 이 은행에서는 다른 사람의 동의 하에 필요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학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으로 그 친구는 매우 슬퍼했어요. 우리는 은행의 돈으로 그를 도와주고자 생각했어요. 우리의 저축을 나누는 것은 새로운 부유함을 낳아주었는데, 그 친구가 학교에 되돌아오는 것을 보는 기쁨이었어요. 그 후에 우리는 큰 액수를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내어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였어요. 이는 기쁘게 내어주는 사람에게 백배로 갚아주시는 하느님의 답이었어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기쁨과 고통, 무엇보다 항금률을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나누어요.

우리 아버지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오랜 기간 우리는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우리의 어려움을 바쳤어요. 하늘에 저금한 이 재산이 온 가족을 도와주었고 그 후 아버지의 건강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치료가 잘 되었다고 했을 때는 너무도 기뻐요.

노래 “LE CITTÀ”

Immagina un po' se le strade dove stai camminando

Ti facessero sentire a casa tua.

Se fossero proprio le piazze

Dove stai riposando ad accoglierti

Anche se non sei di qui.

Come vorrei che fosse così

La mia città una casa per te.

Immagina poi se i palazzi si vestissero a festa

per far bello tutto il bello che vorrai

Se i muri ti aprissero il cuore
Tu potresti passare anche dove non l'avresti fatto mai.
Se tu vorrai sarà così
oggi lo sai che sono qui

**Le città non sono solo di mattone
Soprattutto sono fatte di persone
Con i tuoi respiri con i miei respiri
Con i tuoi pensieri qui nei miei pensieri
E non è solo un sogno basta che lo vuoi
Si può accendere il giorno sulla mia città.**

Immagina un po' di tentare un nuovo modo
Di stare con gli altri fare quello che vorresti fatto a te
Di certo la gente che incontri all'inizio sorpresa
Tenterebbe questo gioco insieme a noi

Se tu vorrai sarà così
oggi lo sai che sono qui

**Le città non sono... (2x)
E non è solo un sogno basta che lo vuoi
Si può accendere il giorno sulla mia città.**

페루 볼리바와 전화 연결

레/티/차/아 : 이제 안데스 산맥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우리는 볼리바라 불리는 고도 3200 미터에 위치한 도시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기쁘는데 오래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는 소식은 큰 기쁨을 주며 우리 역시 이곳에서 형제애를 건설하고자 해요.

레/티/차/아 : 여러분도 오늘 Run4unity 를 살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600 명으로 이 지역의 14 개 장소에서 왔어요.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 중 몇몇은 걸어서 혹은 망아지를 타고서 강이나 굽은 길을 건너 17 시간 이상 여행을 했어요. 몇 명은 이미 어제 저녁에 도착했기에 우리의 집을 제공하며 적절하게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었어요.

약 30여 명의 청소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되고 싶은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말을 타고 가는 것으로 Run4unity 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페루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보내요.

“x” 표시 선포



크리스티나 : 모두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넓혀

우리의 사랑을 불어나도록 해요.

우리 옆을 지나가는 사람은

부자이든 걸인이든, 아름답건 흉하건,

능력이 있건 없건, 고향사람이든 아니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에요.

각자 자신 안에 지닌 부유함을 발견하고

우리를 일치시키는 것을 추구하며 모두와 대화하도록 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따를 것이에요.

프란치스코 : 이제 상자의 또 다른 면, 새로운 수학 기호 “곱하기”를 발견하는데 이는 모두를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 옆에는 아르헨티나의 로미가 와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400 개 학교에 도달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추진자예요.

아르헨티나의 로미: 여러 학교에서 열린 포럼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시장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로사리오 시가 선택되었어요. 우리에게도 도시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의 제안을 시장들에게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보였어요. 포럼을 개최해 여러 학교들을 동참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토론회를 통해 해결책을 제의하고 형제애를 일으키기 위한 활동들을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 이를 제안했을 때 교장선생님은 “도와줄 교사들이 없기에 원한다면 혼자서 하라고” 말했어요. 처음의 두려움이 지난 후 모든 교실을 찾아 갔고 15 명이 응했어요. 아르헨티나의 여러 도시의 청소년들에게도 초대장을 보냈어요. 함께 일하면서 결론 메시지를 작성했고 라틴 아메리카 시장들 총회에 이를 소개했어요.

그 이후부터 많은 학교들이 동참하며 10,000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현한 일들은 다양해요. 도움이 필요한 학교와 자매 결연, 장애인들과의 활동, 걸인들을 위한 도서관과 식당 설치, 학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충 수업을 실시했어요. 우리는 학교 건물의 건축학적인 벽들을 부수기 위해 그리고 생태학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일했는데 이는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프란치스코 : 이제 인도로 가서 안드라 프라데시 주의 춤을 보겠어요. 크리스천, 무슬림, 힌두인들 사이에 황금률을 살면서 어떻게 평화와 보편적인 형제애를 건설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요.

인도 전통 춤

인도 콘라드와의 인터뷰: 힌두 청소년들과의 대화

크리스티나 : 차오, 콘라드. 인도에서 첫 Run4unity 에 5,000 명의 청소년들이 동참했고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 여러분과 황금률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회 종교 인사들을 동참시키며 카스트와 종교가 다른 이들이 함께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모두와 대화할 수 있는지 말해 주겠어요?

콘라드 : 비결은 우리를 일치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에요. 거대한 간디 운동인 산티 아쉬람의 힌두 청소년들과 우리는 우리의 도시를 사랑으로 색칠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36 시간 기차를 타고 농촌 지역의 여러 학교에서 가난한 어린이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북쪽 타밀 나두의 그들을 찾아 갔어요. 한번은 한 학교를 색칠했어요. 그들의 집에 우리를 환영했고 인도 남쪽에서 하듯 바나나 잎을 접시로 사용하며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뭄바이로 우리를 찾아 왔고 14 일 간 우리는 고아원, 소아 병원, 학교를 방문하며 기쁨을 전해주었어요.

녹화된 예루살렘과의 전화 통화: 유일신을 믿는 3 종교의 청소년들과의 인터뷰

프란치스코 : 이제 예루살렘과 연결하는 순간이 왔어요. 자주 뉴스를 통해 이 나라의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와요. 마치 평화는 아직도 먼 이야기 같아요. 여보세요?

모두 함께 : 모두에게 인사 전해요!

남자 : 살롬, 나는 야이르이고 예루살렘의 유대인이에요.

여자 : 나는 오델리아이고 나도 유대인이에요.

남자 : 우리 역시 평화는 참으로 먼 이야기라고 느끼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모두가 이런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아랍 지역에는 매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막는 초소들이 존재하며 때로는 비참함을 느끼기도 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늘 살아요. 군복무 기간 중인 가족을 잃어버릴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 :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너머 우리 마음 속에는 희망이 있어요. 나는 평화와 형제애의 미래를 믿어요. 우리는 우리 사이에 관계와 우정을 견고히 하며 이 목적에 도달하기를 바래요.

프란치스코 : 일치와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여러 종교를 지닌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여자 : 우리는 세 종교의 청소년 사이에서 정치적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우정을 시작하기 위해 상호적으로 서로 알기 위한 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남자 : 이 활동에는 10 명의 유대인, 10 명의 크리스천, 10 명의 무슬림이 참여하며 한 해 동안 여러 번 3 종교의 성지를 방문하고, 경험을 나누고, 그리스도교 정신과 유대교와 이슬람의 근본적인 몇몇 원칙을 배우기 위해 모이고 있어요.

여자 : 나는 조반나이고 예루살렘의 크리스천이에요.

이 경험은 비록 문화와 종교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우정을 건설할 수 있다면 더 큰 차원에서도 가능할 것이에요. 사랑과 상호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과 대화로 인해 선입견들은 사라지고 벽들은 무너져요. 감사를 전하고 이제 평화를 뜻하는 살롬과 살람 두 언어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보내요.

“=” 표시 공연

“=” 표시 선포



루카 : 하느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한 도시는 너무도 적어요.

보편적인 형제애와 일치된 세상을 겨냥하기로 해요.

우리는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여러분의 색깔 붓이 필요해요.

너무 조금 사랑했음을

후회하지 않도록

매일 최대한 내어주기로 해요.

원천을 발견하며: 끼아라 소개

레티치아 : 자신의 도시에서 시작해 세상의 많은 도시들을 색칠한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끼아라 루빅으로, “일치를 위한 청소년 운동”이 태어난 원천이에요. 제 2차 세계 대전 중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인 트렌토에서 끔직한 폭격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끼아라와 첫 동료들은 어떤 폭탄도 무너드릴 수 없는 유일한 한 이상을 믿었어요. 바로 하느님, 우리 각자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하느님이세요.

루카 : 주위에 불행과 절망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들은 이 사랑의 힘으로 그들 도시의 여러 구역에 복음에서 태어난 새로운 다른 삶을 전해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더 가난한 이들과 가진 것을 나눌 때마다 모든 선이 백배로 되돌아 오는 것을 보았어요. 몇 달 후에 이미 그들은 500 명이었어요.

레티치아 : 그 이후부터 이 삶은 지구 상 모든 곳에 도달해 남자, 여자, 청소년, 예술가, 정치인, 노동자 등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어요. 예수님의 유언인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한 백성이 자라고 있어요.

루카: 오늘 이 광장에는 초창기 때부터 끼아라와 모험을 함께 나눈 첫 동료들이 자리했다고 알고 있는데, 크리스티나 사실인가요?

실바나와의 인터뷰: 끼아라와의 만남

크리스티나 : 맞아요. 내 옆에는 실바나가 있는데, 끼아라를 만났을 때 우리 나이 또래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 순간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는지요?

실바나 : 나는 15 살로, 어떻게 사람들이 나뭇잎처럼 사라질 수 있는지를 내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 역시 무언가 거대한 일을 이룬 역사 책의 인물들처럼 남기 위해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를 찾았어요. 그 시기에 예수님에 대해 알려줄 한 처녀를 만나도록 초대를 받았어요. 사실 나는 종교 과목 선생님에게 비록 큰 관심을 갖고서 그분의 수업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끼아라가 나를 만나러 왔을 때, 즉시 내게 편안함을 주면서 인사했어요. 우리는 작은 소파에 앉았어요. 나는 책을 바닥에 놓았고 끼아라는 자신에 대해 그리고 너무도 놀라운 모험을 살고 있는 그녀의 친구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내게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우리 주변의 삶에 대해 말했어요. “우리가 서 너 개의 삶을 갖고 있다면 여러 방식으로 이 삶들을 살 수 있겠지만 우리 손에는 단지 하나의 삶이 있어요. 그러므로 온 일생의 가치를 지닌 무언가 영구적인 것을 위해 이 삶을 잘 사용해야 해요.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것이 하느님임을 깨달았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 삶의 이상으로 삼았어요.” 라고 끼아라는 끝에 말했어요.

그 순간 내가 지닌 의문들이 이해받았음을 느꼈고 나를 위한 답을 찾았어요. 한 순간이었으며 나는 하느님을 선택하고자 마음 속으로 결심했어요. 즉 끼아라의 이상은 나의 이상이었고 이것을 위해 살 것이었어요.

마르코와의 인터뷰: 복음의 삶에 관해

프란치스코 : 실바나 감사해요! 마르코는 남자 중에서 끼아라를 따른 첫 번째 사람이지요? 마르코의 삶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마르코 : 나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꺼리는 젊은이였어요. 하지만 끼아라가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빛과 사랑으로 완전히 불타올랐어요. 그 이후부터 끼아라와 항상 연결되어 있었어요. 나는 노동자였으며 여러 일을 할 줄 알았기에 저녁 마다 첫 포콜라레에, 끼아라가 첫 동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작은 집으로 수리를 하러 갔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차츰차츰 그 분위기가 나를 끌어당겼고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쳤을 때 끼아라는 조금 쉴 수 있도록 내게 앉기를 청했어요. 끼아라는 내가 믿고 있지만 항상 멀리 계시다고 느꼈던 그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일할 때도, 기도할 때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먹을 때도, 휴식을 할 때도 늘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날 20 세기에 그분께서 오신다면 마르코처럼 노동자이실거예요.” 내게는 빛이었어요. 한 편으로는 일요일 날만 신자인 실패감이 드러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24 시간 내내 또 다른 예수가 되도록 불리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이 새로운 관점은 내게 너무도 큰 놀라움을 주었기에 그 밤 내내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실현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을 사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부터 이 삶은 전 세계로 전파되었어요.

엘리와 의 인터뷰: 끼아라에게서 청소년들에게 넘겨진 바톤

크리스티나 : 마르코에게 감사해요! 엘리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엘리는 오랜 기간, 마지막 순간까지 끼아라와 함께 했지요. 끼아라가 시작한 그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해 주고 싶은지요?

엘리 :

크리스티나 : 엘리에게 감사해요. 세상에 빛을 밝힌 끼아라에게 우리는 “환한 밤”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바치고자 해요.

노래 “NOTTE CHIARA”

Se guardiamo il mondo dall'alto di un dirupo
Vediamo solamente grigie identità.
Gli uomini da soli arrancano nel buio di un'esistenza
senza amore, senza verità.

E non c'è comprensione nemmeno per chi ti è vicino
Come possiamo vivere così... E allora

Come luci di stessa fiamma rischiariamo questa notte

Riportiamo i colori che il mondo ha perso.

Come luci come stelle illuminate dall'amore

Accendiamo nel mondo fuochi d'unità.

E guardiamo il cielo un manto blu di stelle
Anche la terra può essere così
Una luce nuova per ogni cuore scuro
Può accendere la vita che nessuno al mondo spegnerà.

Noi come stelle brilleremo nella notte
Con il fuoco eterno dell'amore che oggi vincerà... E allora

Come luci di stessa fiamma rischiariamo questa notte
Riportiamo i colori che il mondo ha perso.
Come luci come stelle illuminate dall'amore
Una notte chiara da qui dilagherà. (2x)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끼아라의 메시지

루카 : 이제 얼마 전에 녹화된 비디오를 통해 끼아라의 말을 듣도록 해요. 우리의 목표인 일치된 세상에 도달하기 위한 비결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사랑의 예술에 관한 끼아라의 비디오 메시지

일치. 일치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 또한 그 사실을 확인해 주세요. 나는 이 생각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 중 한 방공호에 있었는데, 그 순간 방공호는 지하실이었고 우리는 복음을 가져갔어요. 방공호에 들고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물건으로, 복음을 펼쳐 촛불 아래 읽었어요.

한 번은 바로 그 지하실에서 복음을 펼쳤을 때 우리 눈 앞에 예수님의 기도, 일치의 기도를 보았어요. “아버지,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었지만 적어도 우리의 나이와 종교적 경험으로 인해 조금은 어려운 기도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 운동의 “대헌장”이 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후 운동은 태어났고 목적은 모든 이의 일치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일치를 하고? 어떻게 일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일치를 살도록 가르쳐주었고, 누가 우리에게 보편적 형제애를 이루고, 이것을 이루는데 협력하라고 말했는가요? 복음으로, 복음에는 그리스천 사랑이 농축되어 있어요. 바로 복음에서 우리가 살고자 노력했던 이 사랑의 특성이 드러났으며, 지금도 우리는 이를 살고, 사람들에게 살도록 권해요. 이 사랑은 단순히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햇빛과 비를 보내 주시는 성부 아버지처럼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모두를 사랑해야 해요.

먼저 시작하는 사랑으로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성부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도록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분께서는 여전히 죄인인, 그러므로 악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분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렇듯 우리의 사랑도 참으로 먼저 시작한다면 크리스천 사랑인 것이에요.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감정이나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 주고, 다른 사람과 고통받으며 그러므로 고통은 줄어들게 되어요. 다른 사람과 기뻐하며 그러므로 기쁨은 백배로 늘어나게 되어요.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사랑이에요.

복음에서 우리가 배웠던 또 다른 것은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매우 아름다운 간디의 말이 있는데 “나는 당신께 악을 행할 수 없으니 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기 때문으로, 당신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다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도록 해 주어요. 비록 사랑이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 시에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악이든 선이든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나는 이 사랑을 살면서 세상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고 그 당시 알려진 세상에 확산되었던 크리스천 혁신이 태어나고 자라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끼아라의 메시지에 대한 응답과 인사

루카 : 이 박수 갈채가 “우리는 준비되어 있음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역시 세상에 사랑을 가져가고, 방금 끼아라에게서 들었던 사랑의 예술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크리스티나 : 우리는 바톤을 받아, 끼아라의 목적 이제는 우리의 목적인 모든 이의 일치를 향해 끼아라가 시작한 경주를 계속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프란치스코 : 이제 작별의 순간이 왔어요. 우리와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모두 일치되었음을 느끼도록 세계적으로 전화연결을 가능하도록 해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드려요.

레티치아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계속 연결되어 있기로 해요. 오늘 우리를 동반해준 수학 기호와 더불어 오늘 우리가 발견한 모든 단계를 밟으면서 계속해 우리의 도시를 사랑으로

색칠하기로 해요. 그렇다면 참된 기쁨을 체험할 것이예요. 복음을 사는 것은 우리 삶의 보물이 될 것이며, 우리는 도시에 황금을 전해주고자 해요.

전 광장을 동참시키는 활기찬 무대 공연

노래 ““THE RISEN ONE”

**You are the risen one you are the Lord
Our hearts are bursting filled with your joy
You are the risen one you are alive
If you believe in him you'll never die
You never die.**

The Lord is now risen the tomb has been opened
And now he's among us 'till the end of time
Morning has broken new life has been given
Darkness has vanishes He's the light that we see
In the night as he spoke to me
In the rising of the sun you'll see. Now I can see!

You are the risen one...

Then early one morning the women were searching
And walking beside them He said who he was
All those who have seen him can say that He's risen
His love is now us 'till the end of time
Break the ice and open the heart
Let the world rejoice, a brand new start. A brand new start.

**You are the risen one you are the Lord
Our hearts are bursting filled with your joy
You are the risen one you are alive
If you believe in him you'll never die
You are the risen one!**

위성 중계 마칩